

A National Survey of Korean Licensed Clinical Psychologists in 2018: Characteristics and Professional Activities

Jung-Hye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This study aimed to obtain information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mployment settings, professional activities, theoretical orientation, and career satisfaction of Korean licensed clinical psychologists. A survey link was sent to the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of Clinical Psychology through e-mail and text message. Of 1,357 licensed clinical psychologists 600 (44.2%) responded to the survey. The results show that the percentage of women has continually increased since 2007, from 75.3% to 87.0%, and the percentage of clinical psychologists with doctoral degrees has decreased since 2007, from 42.7% to 22.2%. The percentage of full-time clinical psychologists was 67.3% and various hospitals and clinics were the most common employment setting for clinical psychologists. The next-most-frequent sites for employment were private practice (14.5%), universities (13.5%), and public and national institutes (10.0%). The majority identified themselves as psychotherapists (40.2%) or psychological assessment professional (39.5%), followed by academicians (12.2%). The numbers of clinical psychologists involved in psychotherapy and assessment for more than half of their time were 160 (26.7%) and 191 (31.8%), respectively. The majority (80.9%) endorsed more than two theoretical orientations, cognitive behavioral, or behavioral orientation was the most-popular primary orientation (63.2%) and psychoanalysis or psychodynamic orientation was the next-most-popular one (18.8%). The mean scores for satisfaction with career, graduate training, and internship were 3.29, 3.21, and 2.83, respectively,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s. Finally, implications and future prospects for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are discussed.

Keywords: clinical psychologists, professional activities, theoretical orientation, evidence-based practice, career satisfaction

한국임상심리학회는 1964년 6명의 소속 회원으로 창립한 지 50여년이 지나 현재 6,000여 명의 회원을 갖춘 대형 학회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발전을 이룬 원동력은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게 된 사회적 요인과 함께 1970년대 초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제도를 만들어 전문가를 꾸준히 배출하고 전문성을 강조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초 위에 1995년 정신보건법(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Correspondence to Jung-Hye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1 Jongam-ro, Seongbuk-gu, Seoul, Korea; E-mail: junghye@korea.ac.kr

Received Apr 17, 2018; Accepted Apr 23, 2018

The author gratefully acknowledge the participation of the 600 licenced clinical psychologists, the technical assistance of Mr. Kibum Moon, and the support of Prof. Jeanyung Chey, the 54th President of Korean Society of Clinical Psychology.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faculty research grant from the College of Liberal Arts at Korea University in 2018.

따라 정신보건임상심리사라는 법적인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고, 정신건강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게 되어 학회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73년 7명의 전문가를 최초로 배출한 이래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1995년까지 총 108명의 임상심리전문가를 배출하였으며, 그 후 10년 동안 임상심리전문가의 수는 457명으로 늘어났다. 2018년 현재 임상심리전문가는 1,357명에 달하고 있어 지난 10년 동안 전문가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적인 증가와 함께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와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임상심리전문가의 활동이 사설치료 기관, 국립암센터,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병무청, 가정법원 등의 국공립기관, 대기업의 상담소 등으로 진출 분야가 다변화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임상심리학은 전문가제도의 확립을 통한 정착기(1973-1994년),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계기로 이룬 확장기(1995-

현재)를 거쳐 이제 질적인 도약을 이루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임상심리학 역시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키면서 학문이 가지는 독특한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가에 따라 그 영향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 심각한 정신건강 실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성이 부족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치료비 절감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존의 비급여항목이 급여화가 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정신건강서비스의 질이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정신건강 전문인력으로서 임상심리전문가들의 역할과 활동에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미국심리학회 제12분과인 임상심리학회에서는 임상심리학의 정의를 “부적응, 장애, 고통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경감시키기 위하여 심리학적 원리와 방법과 절차를 적용하는 데 관련된 연구와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2016). 이 정의는 임상심리학이 심리학적 이론과 연구를 임상 실무와 통합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임상심리학자의 주요 활동이 연구와 교육과 심리서비스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임상심리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2007년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초창기에 전문가들이 주로 병원과 대학 중심으로 활동하던 것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었다(Kwon, 2008). 조사결과 이 당시 우리나라 임상심리전문가들은 자신의 주된 역할을 임상가(74.7%)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주로 하고 있는 활동은 심리치료(35.4%), 심리진단 및 평가(33.0%), 연구 및 논문 작성(21.0%), 강의(19.2%), 수련 감독(18.1%)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임상심리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장으로는 종합병원(16.0%), 대학교(15.3%), 개인병원(14.7%), 사설 치료기관(13.3%) 순으로 나왔으며, 가장 선호하는 이론적 오리엔테이션은 절충적/통합적 이론(50.0%)과 인지행동이론(3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심리전문가로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7이었고, 활동 연한이 길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기업부설센터, 대학교, 사설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병원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2007년도에 조사한 문항들을 대부분 포함시키되 주 역할과 이론적 오리엔테이션 설문의 답을 세분화하고, 전반적 만족도뿐 아니라 대학원 교육과 수련에 대한 만족도를 추가로 질문하였다. 이와 함께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문항을 두 문항 추가하였다. 근거기반실무는 내담자 개인에게 행할 심리치료를 정하는 의사 결정과정에서 연구를 통해 근거가 확보된 심리치료를, 임상적으로

숙련된 치료자가 환자의 필요, 가치와 선호 등의 맥락을 고려하여 내담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APA, 2006). 우리나라 임상심리학이 과학과 이론과 실무를 통합한 분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상심리전문가가 근거기반실무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전문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거기반실무를 수행하는 정도와 이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본 조사를 통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임상심리전문가들의 특성, 근무지, 주요활동, 이론적 오리엔테이션,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태도 및 수행 정도, 만족도를 조사해서 현황을 확인하고, 2007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조사 결과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그 방법을 모색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한국심리학회 공인 임상심리전문가 전원 1,357명에게 이메일과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설문 링크를 보내어 응답을 받았다. 약 보름 정도의 조사기간 동안 약 44%에 해당하는 600명이 조사에 응하였다.

측정도구 및 절차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문항을 포함하는 설문지를 제작하였으며,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6문항), 임상심리학자로서의 주된 역할(2문항), 재직 기관과 근무형태(2문항), 주요 활동(1문항), 주된 이론적 오리엔테이션(1문항), 전반적 만족도(1문항), 대학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1문항), 수련에 대한 만족도(1문항), 근거기반실무를 하는 정도(1문항),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중요도(1문항)로 이루어졌다. 문항은 객관식이었으나 복수응답이 가능한 문항이 많았으며, 구체적인 업무나 활동 비율을 기록하는 문항도 포함되었다. 설문지 응답에 필요한 시간은 대략 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조사는 1차로 2018년 3월 26일 임상심리학회 공식 메일링(kcpa@kcp.or.kr)을 통해 설문 링크(<https://goo.gl/forms/awHVTfYdccy5ceK02>)를 보냈으며, 최초 메일을 보낸 후 10일 후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다시 한 번 설문 링크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결 과

본 조사에 응답한 임상심리전문가 600명의 평균 연령은 38.06(표

준편차: 7.4)세였고, 30대가 가장 많았다. 이들 중 30대에 임상심리 전문가를 취득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57.2%), 그 다음으로 20대(37.5%)가 많았다. Table 1에서 보듯이 남자는 13.0%, 여자는 87.0%를 차지하고 있어 남자에 비해 여자가 약 6.7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가장 많았고(68.2%), 박사학위 취득 전문가가 전체 전문가의 22.2%를 보이고 있어 2007년 조사결과(42.7%)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심리전문가 취득 후 5년 미만 활동한 전문가가 가장 많았고(44.5%), 6년에서 10년 미만 활동한 전문가가 22.7%, 11년에서 15년 사이 활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600)

		n (%)
Age	27~29	42 (7.0)
	30~39	347 (57.8)
	40~49	160 (26.7)
	50~59	47 (7.8)
	60~69	4 (0.6)
Gender	Female	522 (87.0)
	Male	78 (13.0)
Region	Seoul	292 (47.9)
	Daegu	37 (6.3)
	Busan	24 (3.9)
	Gwangju	20 (3.7)
	Incheon	22 (3.4)
	Daejeon	11 (1.8)
	Sejong	4 (0.5)
	Ulsan	2 (0.3)
	Gyeonggi-do	123 (20.3)
	Gangwon-do	19 (3.2)
	Chungcheonbuk-do	9 (1.6)
	Chungcheonnam-do	11 (1.9)
	Jeollabuk-do	6 (1.1)
	Jeollanam-do	3 (0.6)
Degree	Gyeongsangbuk-do	6 (1.1)
	Gyeongsangnam-do	10 (1.9)
	Jeju Province	1 (0.3)
	Master's	467 (77.8)
	Doctoral	133 (22.2)
Licensure age (year)	25~29	225 (37.5)
	30~39	343 (57.2)
	40~49	29 (4.8)
	50~59	3 (0.5)
	Less than 1	35 (5.8)
Duration of licensure (year)	1~5	267 (44.5)
	6~10	136 (22.7)
	11~15	100 (16.7)
	16~20	29 (4.8)
	Over 20	33 (5.5)

동한 전문가가 16.7%, 1년 미만 활동한 전문가가 5.8%에 해당해 전체적으로 보면 활동기간이 5년 이내의 젊은 전문가들과 보다 긴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임상심리전문가의 고용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는 67.3%였으며, 시간제로 근무하는 전문가는 28.7%였다. 이는 2007년 조사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전문가의 비율이 17.3%였던 것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의 재직 기관을 살펴보면 종합병원과 개인병원(47.0%), 사설치료기관(27.2%), 대학교(19.7%), 국공립기관(15.5%)에 근무하는 전문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가가 10.8%, 대학부설 연구소 및 학생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10.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근무기관으로 응답한 곳을 살펴보았을 때 종합병원과 개인병원(38.8%), 사설 치료 기관(14.5%), 대학교(13.5%), 국공립기관(10.0%)에 근무하는 전문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각각의 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기업부설센터는 93.5%, 국공립기관은 93.3%, 지역사회센터는 90.6%로서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일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임상심리전문가로서 현재 자신의 주된 역할(복수응

Table 2. Employment Status and Primary Employment Sites

		Multiple choice n (%)	1st choice n (%)
Employment type	Part-time	-	172 (28.7)
	Full-time	-	404 (67.3)
	Other	-	24 (4.0)
Employment sites	University (Psychology department/other)	118 (19.7)	81 (13.5)
	Private practice	163 (27.2)	87 (14.5)
University affiliated clinic/University Students' counseling Center	Hospital(General, Outpatient clinic/ Psychiatric hospital)	282 (47.0)	233 (38.8)
	University affiliated clinic/University Students' counseling Center	62 (10.3)	28 (4.7)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65 (10.8)	32 (5.3)
	Counseling center of private company	38 (6.3)	31 (5.2)
	National/Government Institute	93 (15.5)	60 (10.0)
Other	Other	26 (4.3)	38 (6.3)

Note. 1st choice missing data n = 10.

답)에 대해 질문했을 때 심리평가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82.8%), 심리치료자(75.7%)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교육자(40.7%), 연구자(31.8%), 행정가(22.0%)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본인이 미래에 희망하는 주된 역할에 대해서는 90.0%의 전문가가 자신의 주된 역할을 심리치료자로 활동하기를 원한다고 답했으며, 65.5%가 교육자, 59.7%가 심리평가자, 43.8%가 연구자로 답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Tables 3과 4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Table 5에서는 임상심리전문가로서 주로 관여하고 있는 활동과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칼럼에는 복수응답에서 각각의 활동에 관여한다고 응답한 모든 사람들의

Table 3. Primary Self-Views of Clinical Psychologists

Role	Multiple choice n (%)	1st choice n (%)
Psychotherapist	454 (75.7)	241 (40.2)
Psychological assessment specialist	497 (82.8)	237 (39.5)
Educator	244 (40.7)	73 (12.2)
Researcher	191 (31.8)	26 (4.3)
Administrator	132 (22.0)	20 (3.3)

Note. 1st choice missing data n = 3.

Table 4. Primary Hoped-for Self-Views in Future

Role	n (%)
Psychotherapist	540 (90.0)
Psychological assessment specialist	358 (59.7)
Educator	393 (65.5)
Researcher	263 (43.8)
Administrator	81 (13.5)

Table 5. Professional Activities of Clinical Psychologists

Activity	Multiple choice		Activity engaged more than 50% of time n (%)	Activity engaged more than 31% of time n (%)
	n (%)	Average percent of time ^a		
Psychotherapy	483 (80.5)	28.7	160 (26.7)	170 (28.3)
Diagnosis/ Assessment	543 (90.5)	36.4	191 (31.8)	203 (33.8)
Teaching	321 (53.5)	9.4	21 (3.5)	38 (6.3)
Clinical supervision	255 (42.5)	7.9	20 (3.3)	34 (5.7)
Research/writing	246 (41)	7.5	18 (3.0)	22 (3.7)
Consultation	265 (44.2)	3.6	1 (0.2)	1 (0.2)
Administration	357 (59.5)	8.7	18 (3.0)	22 (3.7)
Other	22 (3.7)	0.8	4 (0.7)	5 (0.8)

^aThe mean percentage of time engaged in the activity.

수와 비율을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 칼럼에는 그 사람들이 각각의 활동을 하는 시간 비율을 보고한 것을 평균한 값을 제시하였다. 심리평가와 심리치료에 보내는 시간 비율이 36.4%와 28.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의(9.4%), 행정 및 관리(8.7%). 수련 감독(7.9%)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칼럼과 네 번째 칼럼에는 각 활동을 본인의 전체 시간에서 50% 이상 하는 사람과 31% 이상 하는 사람의 수와 비율을 제시하였다.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활동에 50% 이상 관여한다고 답한 전문가의 비율은 심리평가(31.8%)와 심리치료(26.7%)에서 가장 높았으며, 강의(3.5%)와 수련 감독(3.3%)이 그 다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6에는 임상심리전문가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병원, 사설치료기관, 대학교, 국공립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의 활동 양상을 각각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병원과 사설치료기관, 국공립기관 모두에서 심리평가와 심리치료를 주로 하고 있었으며, 대학교에서는 심리치료와 강의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에 의하면 우리나라 임상심리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이론적 오리엔테이션을 복수로 응답하게 했을 때 인지행동치료는

Table 6. Activity Profiles of Four Groups of Clinical Psychologists

Activity	Hospital employees (n = 233) n (%)	Private practice (n = 87) n (%)	University employees (n = 81) n (%)	National/Government employees (n = 60) n (%)
Psychotherapy	166 (71.2)	79 (90.8)	66 (81.5)	45 (75.0)
Diagnosis/ assessment	228 (97.9)	83 (95.4)	48 (59.3)	55 (91.7)
Teaching	94 (40.3)	53 (60.9)	66 (81.5)	21 (35.0)
Clinical supervision	99 (42.5)	43 (49.4)	55 (67.9)	9 (15.0)
Research/ writing	91 (39.1)	26 (29.9)	64 (79.0)	17 (28.3)
Consultation	89 (38.2)	40 (46.0)	50 (61.7)	24 (40.0)
Administration	120 (51.5)	43 (49.4)	43 (53.1)	51 (85.0)
Other	7 (3)	0	1 (1.2)	0

Note. Multiple choices were allowed.

Table 7. Primary Theoretical Orientation

Orientation	Multiple choice n (%)	1st choice n (%)
Cognitive Behavioral/Behavioral	529 (88.2)	379 (63.2)
Psychoanalysis/Psychodynamic	319 (53.2)	113 (18.8)
Gestalt	145 (24.2)	36 (6.0)
Systems	39 (6.5)	5 (0.8)
Object relations	253 (42.2)	62 (10.3)

Note. 1st choice missing data n = 5.

Table 8. Satisfaction with Career, Graduate Training, and Internship

Level of satisfaction	Career %	Graduate training %	Internship %
Very dissatisfied	5.5	4.5	14.5
Slightly dissatisfied	25.5	23.0	27.5
Neither dissatisfied nor satisfied	19.8	29.2	25.5
Slightly satisfied	33.3	33.3	25.7
Very satisfied	15.8	10.0	6.8
Mean	3.29	3.21	2.83
SD	1.17	1.05	1.17

88.2%, 정신분석/정신역동이론은 53.2%, 대상관계이론은 42.2%가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두 개 이상의 이론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전체의 80.9%로서 우리나라 임상심리전문가는 상당히 절충적인 이론적 입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장 주된 이론적 오리엔테이션으로 밝힌 오리엔테이션은 인지행동/행동이론(63.2%), 정신분석/정신역동이론(18.8%), 대상관계이론(10.3%), 계슈탈트이론(6.0%)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임상심리전문가들이 근거기반실무를 하는 정도를 조사했을 때 10점 만점에 7.33(표준편차: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거기반실무의 중요도를 5점 만점으로 물어보았을 때는 4.45(표준편차: 0.67)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Table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임상심리전문가들의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평균: 3.29, 표준편차: 1.17), 대학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평균: 3.21, 표준편차: 1.05), 수련에 대한 만족도(평균: 2.83, 표준편차: 1.17)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598) = 39.58, p < .001$. Bonferroni 교정을 이용한 사후 분석 결과, 수련 만족도는 전반적인 만족도 및 대학원 만족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각 만족도 수준에 딱한 사람들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우선 약간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에 응답한 사람들을 합쳐 보았을 때 전반적 만족도에서는 전문가의 49.1%, 대학원 교육에 대해서는 43.3%, 수련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32.5%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한편 약간 불만족한다와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사람들의 비율을 합쳐서 보았을 때 전반적 만족도에서는 31.0%, 대학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27.5%, 수련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42.0%가 불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임상심리전문가의 성별, 활동 연한, 근무 형태에 따라 전반적 만족도가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 임상심리전문가의 성별에 따른 만족도(남자 평균: 3.47, 표준편차: 1.19; 여자 평균: 3.25, 표준편차: 1.16)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598) = 1.54$,

ns. 다음으로 활동 연한에 따른 만족도에서는 활동 연한이 5년 미만인 전문가의 만족도(평균: 3.08, 표준편차: 1.11)가 활동 연한이 5년 이상인 전문가(평균: 3.57, 표준편차: 1.18)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598) = -5.23, p < .001$. 또한 전일제로 근무하는 전문가의 만족도(평균: 3.42, 표준편차: 1.15)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전문가(평균: 3.12, 표준편차: 1.16)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574) = 2.90, p < .01$.

논 의

본 조사는 2007년 조사 (Kwon, 2008) 이후 10여 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임상심리전문가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얻어 현황을 파악하고 변화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본 조사에 응한 600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이 38.06세이며, 30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10년 전과 비슷하게 30대의 전문가들이 과반수에 이르는 젊은 전문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47.9%)과 경기도(20.3%)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여성 87.0%, 남성 13.0%를 차지하여 특히 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 나타난 지역과 성별의 편중현상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임상심리전문가의 활동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고, 남자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회가 균형 있게 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적 분포나 성비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학회가 장기적 발전계획을 세우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공계 학생들의 방위산업체 근무를 군복무로 인정받는 것과 같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남자전공자들이 군부대에서 정신건강요원으로 근무하며 수련을 받고 동시에 군복무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임상심리전문가들의 고용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는 67.3%였으며, 시간제로 근무하는 전문가는 28.7%였다. 시간제로 일하는 전문가의 비율은 2007년 조사 결과(17.3%)에 비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은 종합병원과 개인병원(47.0%), 사설치료기관(27.2%), 대학교 (19.7%), 국공립기관(15.5%)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07년 조사에 비해 국공립기관이나 지역사회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가가 늘어났는데, 이들 기관은 전일제로 근무하는 전문가의 비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공립기관: 93.3%; 지역사회센터: 90.6%). 앞으로 임상심리전문가들이 국립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센터뿐 아니라 법원, 검찰이나 경찰, 교육부 산하기관 및

기타 정부기관에 더 많이 진출하여 정책자문이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전문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좋아질 뿐 아니라 전일제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많은 임상심리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나 사설치료기관, 대학의 경우 시간제로 일하는 전문가들의 비율이 높은 것은 주목해보아야 할 결과다. 물론 이들 전문가 중에는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어 전일제 직장을 다닐 수 없거나 여러 근무지에서 다양한 전문 활동을 하기 위해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일제 직장을 얻지 못해 직장의 안정성이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개인병원이나 사설치료기관에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 조사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전문가의 만족도가 전일제로 일하는 전문가보다 낮게 나온 결과는 이런 추론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준다. 즉 학회의 규모는 커지고 배출된 임상심리전문가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임상심리전문가의 전일제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았고, 임상심리전문가들이 지방이나 급여가 많지 않은 전일제 일자리에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임상심리학자들의 활동을 50년에 걸쳐 분석한 Norcross와 Karpak(2012)에 의하면 미국 역시 전반적으로 전문가의 일자리가 더 세분화되었으며 서서히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로도 점점 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저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활용하고 테크놀로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일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를 위한 전일제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는 쉬운 답을 찾을 수 없는 난제이지만, 대학원 교육과 수련을 통해 임상심리전문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반드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임상심리전문가들에게 자신의 주된 역할을 복수로 응답하게 했을 때 심리평가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82.8%), 심리치료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75.7%)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주된 역할을 한 가지만 고르게 했을 때는 40.2%의 전문가가 자신을 심리치료자로 생각하고 39.5%가 심리평가자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교육자나 연구자 및 행정가로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는 전문가의 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한편 본인이 미래에 희망하는 주된 역할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다수(90.0%)가 심리치료자의 역할을 원한다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자, 심리평가자, 연구자의 순으로 답하였다. 대부분의 임상심리전문가들이 바라는 미래의 주 역할이 심리치료자이고, 심리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은 현실을 고려해볼 때 현재 대학원 교육이나 수련의 패러다임을 대폭 수정할 필

요가 있다. 실제 임상심리전문가들이 심리치료를 하는 현장에 나가서도 심리평가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심리치료자로서 받는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는 이유도 있지만, 대학원에서나 수련병원에서 심리치료의 실습을 충분히 받지 못해 심리치료자로서 본인의 역량에 대해 자신감이나 자기효능감이 높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심리치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원 교육과 수련시스템이 변화되어야 함과 동시에 임상심리전문가를 심리치료자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정책적인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전문가들이 50%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활동으로 심리평가(31.8%)와 심리치료(26.7%)를 들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병원이나 사설치료기관, 국공립 기관 등 현장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2007년도 조사에서 50% 이상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심리평가의 경우 35.7%, 심리치료의 경우 37.6%로 나왔던 것에 비해 모두 줄어들었으나 상대적으로 심리치료에 50%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전문가의 비율이 더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 한 사람이 여러 전문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의 활동에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임상심리전문가들의 활동에서 심리평가의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다는 것은 우리의 강점이 되기보다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와 같이 종합심리평가 위주로 심리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심리검사에 대한 컴퓨터화된 해석이나 심리평가의 의료 수가가 떨어질 때 임상심리전문가들이 입을 타격이 매우 클 것이다. 임상심리전문가들이 근거기반실무에 바탕을 두고 유사 분야의 타 전문가들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심리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임상심리전문가들이 심리평가자로서 받은 수준 높은 훈련을 활용하되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심리평가분야를 개발하고, 근거기반 심리평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임상심리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론적 오리엔테이션은 인지행동/행동이론(88.2%), 정신분석/정신역동이론(53.2%), 대상관계이론(4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 이상의 이론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전체의 80.9%로서 절대 다수가 절충적인 이론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조사에서 절충적 이론을 채택하는 전문가들이 많아 본 조사에서 절충적 이론을 선택지로 넣지 않고 복수로 응답하게 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오히려 복수 응답하는 전문가의 비율을 높였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63.2%의 전문가가 인지행동/행동이론을 가장 주된 이론적 오리엔테이션으로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어 다른 이론을 주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밝힌 사람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그 수가 많은 것으로 나

왔다. 인지행동치료가 다양한 정신 장애에 경험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치료로 밝혀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상심리전문가가 인지행동 이론에 바탕을 두고 심리치료를 수행한다면 정신건강분야의 타 전문가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국 임상심리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Norcross와 그 동료들(2005)에서 인지이론이 가장 널리 활용된다고 보고된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이론적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절충적 접근을 사용하는 전문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각 이론을 사용하는지, 절충적 접근을 사용하는 것이 치료효과를 높이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 임상심리전문가들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3.29로서 2007년 결과(3.27)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으며, 대학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수련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3.21과 2.83으로 나왔다. 성별, 활동 연한, 근무 형태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활동 연한이 5년 미만인 전문가가 활동 연한이 5년 이상인 전문가에 비해 낮았으며, 시간제로 일하는 전문가의 경우 전임제로 일하는 전문가보다 낮았다. 활동 연한이 5년 미만인 전문가가 전체 전문가 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만족도가 낮다는 결과는 주목해보아야 할 점이다. 활동 연한이 짧기 때문에 지위나 연봉이 낮고 미래가 불안정할 수 있지만, 대학원 교육과 힘든 수련과정을 마치고 전문가를 취득한 후에도 전일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시간제로 일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직업만족도 자체가 낮아지고 분야 전체의 활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학회에서 이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신진 전문가들이 진입하기에 쉬운 일자리나 분야를 개척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겠다.

또한 본 조사에 의하면 수련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나 대학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 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급여수준이 만족도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겠지만 이외에도 수련의 내용과 질이나 수련생 선발방식에 대한 불만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최근 학회에서 현 수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개선방안도 제안되었다(Yang et al., 2017). 임상심리전문가가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국민들의 정신건강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가의 여부는 결국 수련과정을 통해 얼마나 역량 있는 전문가를 키워내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수련의 내용과 질을 강화하고 수련생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련 기관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수련 기관의

연합을 통한 교차 수련을 활성화하고, 수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학회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본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임상심리전문가들의 근거기반실무를 수행하는 정도는 10점 만점에 7.3점으로 나왔으며, 중요도에 대한 의견은 5점 만점에 4.5점으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임상심리전문가들이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근거기반실무를 전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적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근거기반실무의 개념은 타 정신건강분야에서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지만, 과학과 실무를 통합하는 임상심리학에서 가장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 결과 임상심리전문가들이 근거기반실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적용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근거기반실무의 원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정신건강전문가에 의해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성을 가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조사가 가지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심리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과 비교해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의 활동양상이나 근무지가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10년 전에 비해 응답률이 높아졌으며 비슷한 외국 조사(Norcross et al., 2005; Norcross & Karpik, 2012)에서의 응답률과 유사하지만, 여전히 응답률이 50%에 이르지 못해 본 조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을 가진다. 셋째,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조사 문항을 최소화한 결과 임상심리전문가의 현황을 넘어서서 심층적인 문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얻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넷째, 한 개의 문항을 사용해서 조사한 내용이 많으며, 자기보고식 응답을 분석한 것이므로 신뢰도가 불확실하며, 자기 보고의 편향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추후 연구에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복수의 문항을 사용하고, 면담이나 활동 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얻어 본 조사의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 얻은 결과는 임상심리전문가의 특성과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줌으로써 현황을 파악하게 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임상심리전문가들의 특성과 활동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임상심리전문가들의 지역적 편중과 성비의 불균형이 심하다. 둘째, 임상심리전문가의 주

된 역할과 전문 활동 및 주요 근무지에 있어서 10년 전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즉 임상심리전문가들은 병의원과 사설 치료기관을 여전히 주 활동무대로 삼고 있으며, 전문 활동에서 심리평가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지 않았다. 셋째, 임상심리전문가의 수는 급증했으나 10년 전에 비해 시간제로 일하는 임상심리전문가의 비율이 더 늘어났다. 넷째, 전문가로서의 만족도가 10년 전에 비해 올라가지 않았으며, 수련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나 대학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보다 낮다. 다섯째, 절충적 이론을 사용하는 임상심리전문가가 많으며, 가장 선호하는 이론적 오리엔테이션은 인지행동/행동이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본 조사 결과 임상심리전문가들이 근거기반실무를 상당 부분 적용하고 있고 그 중요도에 대해 상당히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결과가 임상심리학의 발전에 대해 가지는 함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심리전문가의 근무지와 활동 현장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병의원과 대학을 넘어 확장되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국공립기관이나 지역건강센터에 일하는 전문가들이 늘었다는 결과는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임상심리전문가의 활동영역이 공공부문으로 더 확대되어야 하며 새로운 분야로 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령화, 저출산률, 다문화 가정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심리학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고 문제해결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직도 임상심리전문가의 전문 활동에서 심리평가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강점이라기보다는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심리평가가 임상심리전문가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고유 업무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심리평가가 근거기반실무에 바탕으로 두고 타 분야 전문가에 비해 질적으로 차별성을 가지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비용대비 효과의 측면에서 그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심리평가의 수요나 의료수가가 낮아질 때를 대비하여 근거기반실무에 바탕을 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심리평가분야를 개발하고, 동시에 인지행동/행동이론을 활용한 심리치료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임상심리학이 질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일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야 하고 전일제 일자리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학회는 사설치료기관과 정신재활센터 등 임상심리전문가들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현장을 늘리는 데 주력함과 동시에 군대나 건강 분야의 새로운 현장을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수련이 안고 있는 문제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 하루 빨리 수련생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 기관의 양적 확대와 함께 수련 기관의 연합을 통한 교차 수련을 활성화하지 않는다면 대학원을 졸업한 수련후보자들이 인접 분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유능한 인재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여섯째, 임상심리전문가들은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요구를 읽어내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미래 사회에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정신건강서비스가 더 널리 보급될 것이며,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인력과 개입이 더 널리 활용될 것이다. 임상심리전문가가 타 분야 전문가보다 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학원 교육과 수련과정을 통해 보다 세분화된 전문성을 가져야 하며 이와 함께 근거기반실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임상심리학의 영향력과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분야의 정책 결정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리치료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볼 수 있다. 임상심리전문가들이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위기는 기회로 바뀔 것이다.

References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6). *Division 12: Society of Clinical Psychology*. Retrieved from www.apa.org/about/division/div12.html.
- APA Presidential Task Force on Evidence-Based Practice. (2006). Evidence-based practice in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61, 271-285.
- Kwon, J. H. (2008). Report on the 2007 survey findings on the Korean clinical psychologists' major roles and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 571-579.
- Norcross, J. C., Karpak, C. P. (2012). Clinical psychologists in the 2010s: 50 years of the APA division of clinical psychology. *Clinical Psychology Science & Practice*, 19, 1-12.
- Norcross, J. C., Karpak, C. P., & Santoro, S. O. (2005). Clinical psychologists across the years: The division of clinical psychology from 1960 to 2003.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1, 1467-1483.
- Yang, J. W., Min, B. B., Kim, J. H., Sung, T., Ye, Y. J., Lee, Y., ... Choi, S. W. (2017). Suggestions for the training and education of clinical psychologis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 1-9.

국문초록

한국 임상심리전문가의 역할과 활동: 2018년도 조사보고서

권정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1964년 창립한 한국임상심리학회는 1973년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1,357명의 임상심리전문가를 배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근무지와 근무형태, 주요 역할과 활동, 이론적 오리엔테이션, 만족도, 및 근거기반치료를 수행하는 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임상심리학회 공식 메일링으로 설문 링크를 보내고, 일주일 후 임상심리전문가들에게 문자를 통해 다시 한 번 설문 링크를 보내 조사자를 실시하였으며, 총 600명이 응답하여 약 44.2%의 회수율을 보였다. 조사 결과 2007년 조사 결과에 비해 연령분포나 지역분포는 비슷하였으나, 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비율이 22.2%로 감소하였다. 주요 근무기관으로는 종합병원 및 개인병원, 사설 치료기관, 대학교, 국공립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심리학자로서 자신의 주된 역할을 심리치료자나 심리평가자로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와 비슷하게 현재 50%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전문 활동으로 전단과 심리평가(31.8%), 심리치료(26.7%), 강의(3.5%)를 드는 사람이 많았다. 한편 대부분의 임상심리전문가들이(80.9%) 두 개 이상의 이론적 오리엔테이션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주요한 이론으로는 인지행동/행동이론(63.2%), 정신역동이론/정신분석(18.8%)을 들었다. 근거기반 실무를 하는 정도는 10점 만점에 7.33이었으며, 근거기반실무의 중요도는 5점 척도에서 4.45였다. 다음으로 임상심리전문가의 전반적인 만족도, 대학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수련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3.29, 3.21, 2.83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으며, 수련에 대한 만족이 전반적 만족도와 대학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의 합의와 시사점 및 임상심리학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임상심리전문가, 전문 활동, 이론적 오리엔테이션, 근거기반실무, 만족도